



# 잇겠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주 삼매미시의 사할리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한국의 양희영이 17번 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메이저 킴’ 양희영, LPGA 다우 챔피언십 ‘팀 대회’ 제니퍼 송과 ‘호흡’...연승 도전

34세에 처음으로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하는 감격을 누린 양희영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팀 대회’에서 기세를 잇는다.

시즌 3번째 메이저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을 치른 LPGA 투어는 이번 주엔 27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미시간주 미들랜드의 미들랜드 컨트리클럽(파70·6277야드)에서 개최되는 다우 챔피언십(총상금 300만 달러)으로 이어진다.

2019년부터 열린 다우 챔피언십은 LPGA 투어에선 유일하게 선수 2명이 팀을 이뤄 경쟁하는 방식의 대회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취리히 클래식과 유사한 형태로, 순위도 팀 단위로 가린다.

공 하나로 같은 팀 선수 2명이 번갈아 샷을 하는 포섬 방식과 두 명이 각자의 공으로 경기해 매 홀 더 좋은 점수를 그 팀의 성적으로 삼는 포볼 방식이 나흘간 번갈아 진행된다.

앞선 4차례 대회(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여파로 미개최)가 열리는 동안 한국 선수가 우승한 적은 아직 없다.

이번 대회에선 지난해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한국 선수의 2024시즌 첫 승 물꼬를 튼 양희영의 활약이 주목된다.

양희영은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자신의 첫 메이저대회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2024 파리 올림픽 출전권까지 거머쥔 가운데 이번 대회에 나선다.

그는 교포 선수 제니퍼 송(미국)과 팀을 이뤄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1989년생으로 양희영과 나이가 같은 제니퍼 송은 2010년 LPGA 2부 투어에서 2승을 거둔 선수다.

지난해 12월 제니퍼 송이 LPGA 켈리파잉(Q) 시리즈에 나섰을 때 양희영이 캐디를 맡았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이다. 지난 시즌 부진한 성적에 투어카드를 잃었던 제니퍼 송은 당시 Q시리즈를 공동 17위로 마쳐 이번 시즌에도 LPGA 투어에서 뛰

고 있다.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시즌 최고 성적인 공동 2위에 오르며 세계랭킹 3위로 도약한 고진영은 LPGA 투어 통산 6승을 보유한 일본의 하타오카 나사와 조를 이뤄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이밖에 유해란과 이소미, 김세영과 전지원, 김민경과 강혜지가 각각 짝을 이뤘고, 김아림은 교포 선수 노예림(미국)과, 루기 성유진은 일본 선수 사이고 마오와 함께 나선다.

지난해 대회를 앞두고 가장 강력한 조합으로 꼽혔으나 컷 탈락했던 브룩 헨더슨(캐나다)과 래시 톰프슨(미국)은 올해 다시 한 팀으로 정상을 노리며,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대니얼 강(미국) 등도 팀으로 호흡을 맞춘다.

사이에 나이트-엘리자베스 소콜(미국)은 타이틀 방어전에 나서고, 2021년 우승팀인 모리아 쭈타 누간-에리아 쭈타누간(태국) 자매 등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 잇겠다

김주형이 22일(한국시간) 미국 코네티컷주 크롤웰의 TPC리버하이랜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투어 트래블러스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 4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PGA 트래블러스챔피언십 준우승 김주형, 27일 로켓 모기지 클래식 우승 별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에서 ‘세계 최강’ 스코티 셰플러(미국)와 격전을 치렀던 김주형이 이번 주 27일 개막하는 로켓 모기지 클래식에도 출격한다.

지난 5월 CJ컵 바이런 넬슨 대회를 시작으로 이번 주 대회까지 출전하면 김주형은 9주 연속, 9개 대회 연속 대회에 나선다.

김주형은 이미 2024 파리 올림픽 남자골프 출전권을 확보했고, 지난 대회에서는 셰플러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을 치렀지만 아쉽게 우승을 놓쳤다.

김주형이 강행군을 이어가는 것은 오는 가을 페덱스컵 순위 70위 안에 드는 선수들끼리 벌이는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확실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서다.

김주형의 현재 페덱스컵 랭킹은 지난해 61위에서 39위로 올랐다.

하지만 이번 주 대회를 시작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는 선수들이 모두 출전하는 풀필드 6개 대회가 잇따라 열려 결과 방심할 수 없는 상태다.

김주형은 27일부터 나흘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골프클럽(파72·7370야드)에서 열리는 로켓 모기지 클래식에서 최근 날카로워진 샷 감각을 앞세워 우승까지 노린다.

김주형은 지난 5개 대회에서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준우승, US오픈 공동 26위, 메모리얼 토너먼트 공동 43위, RBC 캐나다 오픈 공동 4위를 기록

했다.

이번 주 대회에는 디펜딩 챔피언 리키 파올라(미국)를 비롯해 한국의 김성현·이경훈, 약사이 바티아(미국), 윌 켈러토리스(미국) 등이 출전한다.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꿈의 타수’인 59타를 친 캐머런 영(미국)도 출전해 김주형과 우승을 다툰다.

총상금 920만 달러(약 127억7000만원), 우승상금 165만 달러가 걸린 로켓 모기지 클래식은 코스가 쉬워 낮은 스코어가 나오는 대회로 유명하다.

지난 5개 대회 우승자 중 네명이 23인더파 이하의 스코어를 적어냈고, 작년 대회 18홀 평균 스코어는 69.9타였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충북 진천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태권도장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태권도 미디어데이에서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파리서 태권도 종주국 자부심 회복”

### 한국 대표팀 올림픽 출사표 “적어도 금메달 1개는 딸 것”

2024 파리 올림픽에 나서는 한국 태권도 대표팀이 직전 도쿄 대회의 아픔을 털어내고 ‘종주국’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한국 태권도 대표팀은 25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파리 올림픽 목표를 밝혔다.

대표팀을 이끄는 이창건 감독은 “종주국으로서 파리 올림픽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어도 금메달 하나를 따는 걸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올림픽에 우리나라는 박태준(경희대·남자 58kg급), 서건우(한국체대·남자 80kg급), 김유진(울산시체육회·여자 57kg급), 이다빈(서울시청·여자 67kg 초과급)이 출전한다.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태권도 종주국다운 위상을 뽐내지 못했다. 역대 최다인 6명이 출전했으나 금메달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땀

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 훈련 위주로 준비했던 지난 대회와 달리 대표팀은 출전 선수 개인의 성별, 체급, 몸 상태 등에 맞춘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도쿄 올림픽 결승에서 밀리자 만디치(세르비아)에게 패해 금메달을 눈앞에서 놓친 이다빈은 “각자 상황에 맞게 훈련해보니 효과가 좋은 것 같다. 스스로 컨디션도 끌어올릴 수 있다”며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보일 수 있는 무대라 생각한다. 모두 막중한 책임감을 품고 경기에 임할 거고, 그에 따른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태권도 대표팀의 ‘선봉’은 박태준이다. 박태준은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가장 이른 8월 7일 출격한다.

간판 장준(한국가스공사)을 꺾고 파리행 티켓을 받은 박태준은 “처음 출전하는 올림픽인 만큼 겁 없이 준비했다. 애국가까지 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차게 말했다.

장준을 누르면서 메달 기대주로 떠오른 그는 “부담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이게 좋은 쪽으로, 동기부여가 되도록 더 훈련에 매진하고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 태권도 사상 처음으로 남자 중량급 출전자로 기록된 서건우는 “내 체급에서 처음 나서는 만큼 책임감이 크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꼭 1등하고 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합뉴스

## 광주시체육회, 소년체전 활약 선수단에 장학금

### 130명에 2590만원

올해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빛나는 활약을 선보인 광주 지역 선수들에게 장학금이 수여됐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4일 시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소년체전 입상선수 130명에게 총 259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광주은행에서 지역 유소년 체육발전을 위해 내놓은 기탁금으로 마련됐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올해 소년체전 입상자들이 메달별로 나누어 장학금을 받았다.

금메달 입상자 중에서는 ‘대회 3관왕’을 달성한 근대3종 이우리(광주체육 2년)와 역도 이다은(광주체육 3년)을 비롯해, 농구 여자 15세이하부 3연패에 기여한 김담희(수피아여중 3년), 야구 15세이하부 단체전에서 20년만의 동성중 우승을 이끈 이재운(동성중 3년), 레슬링 김성수(광주체육 3년), 양궁 김중연(광주체육 3년), 에어로빅합합 이태민(월봉중 2년), 조정 노효림(광주체육 3년), 체조 송채연(광주체육 2년), 태

권도 최진영(상무중 3년)이 각 종목을 대표해 장학금을 받았다.

은메달 입상자 중에서는 바둑 기대현(신창중 3년), 복싱 이민호(금호중양중 3년), 사격 김민정(광주체육 3년), 수영 이선영(효광초 6년), 소프라테니스(신광중 3년), 씨름 임철환(화정남초 6년)이, 동메달 입상자 중에서는 유도 김하은(광주체육 3년), 검도 안일웅(서석중 3년), 배구 마서진(치병초 6년), 배드민턴 우민재(계림초 5년), 육상 황원우(광주체육 3년), 펜싱 정은정(풍양중 3년)이 대표로 장학금을 전달받았다.

한편 소년체전 입상자 장학금 수여는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며,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최선을 다하는 학생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즐거움

# 문화 산책

## 광주예술의전당

###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이창훈 개인전 <도시의 삐에로>

일시 : 2024-06-07(금) ~ 2024-07-0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년 광주상설공연(6월)**  
 일시 : 2024-06-01(토) ~ 2024-06-30(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도시의 삐에로**  
 이창훈 개인전  
 2024.6.7 ~ 7.7